

성서 아람어의 서법

강선남*

이 글은 구약성서 아람어 본문에¹⁾ 나타나는 다양한 서법(modality)에 관한 연구이다. 성서 아람어 본문에 나오는 동사 형태를 각각의 서법 형태 안에서 살펴, 아람어 동사로²⁾ 표현된 서법적 의미(modal nuance)를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성서 히브리어 문법에서와 같이 성서 아람어도 서법 형태에 따라 주어진 동사의 고유한 사용법을 소개하는 대신에 전체적으로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³⁾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명령법, 요구법, 미완료,⁴⁾ 그리고 완료라고 불리는 ‘한정 동사’의 각각의 형태를 나누고 주어진 동사 형태를 고려하며 그 안에서 서법적 의미를 찾아보겠다. 먼저 ‘서법’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⁵⁾ 그 다음 성서 아람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서법의 예들을 동사 형태와 서법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되는 서법적 의미가 모두 결정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과 견해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던 부분을 조명하고 논쟁점을 제공한다면, 그것이 이 연구의 작은 기여일 것이다. 또한 성서 아람어에서 발견되는 예들이 여러 다양한 서법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다. 여러 예들이 충분히 제시되었을 때 좀 더 분명한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성서 신학.

- 1) 구약성서 가운데 아람어로 기록된 본문은 다음 네 곳이다. 에스라 4:8-6:18; 7:12-26(예루살렘 성전 복구에 관한 본문). 다니엘 2:4-7:28(묵시적 환시를 포함한 다섯 개의 이야기). 에레미야 10:11(우상숭배를 거부하는 히브리어 본문에 삽입된 아람어 구절). 창세기 31:47(아람어로 옮긴 히브리어 지역 명 두 개).
- 2) 성서 아람어 동사는 두 가지 시상을 지닌다. 곧 완결된 행위를 지시하는 ‘완료’와 완결되지 않은 행위를 지시하는 ‘미완료’가 있다. 분사는 여러 시상을 가리킬 수 있다. F. A.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6th, revised edition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95), 46, no. 98.
- 3) 로젠탈의 경우 성서 아람어 동사 형태(완료/미완료/명령형/분사)의 활용을 제시한 다음, 그 밖에 아람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동사 구문의 몇 가지 특수한 용례를 모아놓고 이를 설명한다. F. A.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59, no. 14.
- 4) 서법적 의미를 지시하는 일부 מוּמַל 미완료/요구법 + 분사의 경우도 이 글에서 포함하기로 한다. 이 ‘완곡어법(periphrasis)’에 관해서는 T. Muraoka, “Notes on the Syntax of Biblical Aramaic”, *JSS* 11 (1966), 151-167를 참조하라.
- 5)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성서 아람어 동사의 고유한 특성과 그 의미를 서법이라는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므로, 서법에 관련된 순수 언어학적인 논의는 깊이 다루지 않고 그 용어와 개념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해를 도울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연구 범위는 이미 성서 아람어로 제한되어 있다.

1. 서법: 개념과 용어⁶⁾

성서 아람어에서 명령법과 요구법 같은 ‘법(mood)’은⁷⁾ 진술문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나 의견을 나타내는 서법을 표현한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법과 요구법 외에 미완료, 완료 같은 한정동사들도 서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⁸⁾ 법과 서법 둘 다 진술문의 내용에 관해 화자가 갖는 심적 태도를 표현하지만 동사의 형태상의 범주인 법과는 달리, 서법은 의미상의 범주이다.⁹⁾ 서법은 진술의 진위에 관한 판단이나 그 실현과 관련된 의도를 전달하는 의미 요소들을 가리킨다.¹⁰⁾ 이러한 의미 요소들로는 이 글에서 논의하는 동사 형태 이외에도 서법을 지시하는 불변화사나 단어가 있다.¹¹⁾

6) 참조. A. Gianto, “Mood and Modality in Classical Hebrew”, *Israel Oriental Studies* 18 (Fs Rainey; 1998), 183-198. 이 글에서 소개되는 서법의 개념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은 기안토의 이론을 따랐다.

7) 진술문의 내용에 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동사의 형태적 변화를 통해 묘사하는데, 이러한 동사의 형태 변화를 ‘법’이라 한다. 성서 아람어에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직설법 이외에 다른 이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진술문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표현하는 명령법(2인칭 명령)과 요구법(3인칭 간접명령)이 있다.

8) 참조. B.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455-457. “모든 서법은 활용과 관련 있거나 활용에서 나온 것이므로, 동사 활용은 서법형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히브리어에는 ‘동사 활용’과 ‘서법’, 그리고 ‘비-한정동사’라는 중복되는 세 개의 그룹이 있다. 비-한정동사는 분사와 연계 부정사와 절대 부정사를 포함한다. 서법적 형태는 권유법과 명령법, 그리고 요구법을 포함한다. 그리고 활용에는, 크게 나누어 동사 어간에 후접하는 완료적 활용(완료)과 전접하는 미완료적 활용(미완료)이 있다.

9) 법과 서법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둘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10) 일반적인 언어학 정의에 따르면, 서법은 진술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의견을 담당하는 언어학적 영역으로, 법(명령법, 접속법 등)과 서법 요소(예를 들어, 영어의 can, may, must 같은 조동사)와 관련 있다. F. R. Palme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시제는 사건을 시간 안에 위치시키고, 시상은 사건의 내적 시간적 구조에 성격을 부여하며, 법은 가능성이나 필요나 소망 같은 사건의 현실성을 묘사한다.” S. Chung and A. Timberlake, “Tense, Aspect, and Mood”,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Vol.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202-258.

11) 예를 들어, 성서 아람어에서 서법을 지시하는 불변화사나 단어로는 הא (‘보라’), כֵּל, פֹּהַל (‘할 수 있다’)이 있다.

성서 히브리어/아람어 문법에서¹²⁾ ‘서법’이라는 전문 용어가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개념은 알려져 있다. 하나의 동사 형태의 중립적 의미에 의미론적 가치가 곁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완료나 완료의 시상 가치(tense-aspect value)에 서법적 의미가 덧붙여지는 것이다. 시제와 시상, 그리고 서법 사이에 서로 교차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¹³⁾ (1) 화자가 말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사건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이므로, 현재시제와 미완료적, 또는 진행 시상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미완료(히브리어), 분사 또는 הוּוּ 미완료형 + 분사(아람어)로 표현된다.¹⁴⁾ (2) 과거시제와 완료적, 또는 비 진행 시상 사이의 상관관계도 있다. 이는 정상적인 완료와 ‘전환 미완료(wayyiqtol)’(히브리어), 그리고 분사(아람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3) 진술 뒤에 일어날 사건은 비현재적이므로,¹⁵⁾ 미래시제와 의심이나 가능성, 그리고 소원의 표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미래성을 지시하기 위해 미완료(히브리어)와 분사(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법과 관련되어 있다. (4) 현재시제와 확실성이나 잠재성을 나타내는 여러 단계의 표현들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미완료의 여러 서법적 의미 안에 반영된다. (5) 어떤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완료 시상과 과거시제 그리고 비현재적 서법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서법의 유형에 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크게 ‘인식적(epistemic)’ 서법과 ‘의무적(deontic)’ 서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⁶⁾ 인식적 서법은 진술문이 참일 필요성이나 가능성과 그 진술에 대한 다른 주관적 태도와 관계 있다. 인식적 서법의 중심 기능은 화자가 그 진술의 사실 여부에 개입되는 정도를 표현한다.¹⁷⁾ 예를 들어, “영회는 분명 다섯 시에 집에

12) 이 글에서는 히브리어 문법의 일반적인 규칙이 성서 아람어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한다.

13) 참조. A. Gianto, “Mood and Modality in Classical Hebrew”, 187-188.

14) 성서 아람어의 분사 용법에 관해서는 F. A.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59, no. 177을 참조하라.

15) 발트케-오코너는 어떤 상황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화자가 그 상황 자체의 현실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둘째, 화자가 그 상황에서 주어와 서술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곧 그 상황이 진술에 대한 화자의 관계나 진술의 주어와 그 서술의 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B.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506, no. 31.4.

16) 바이비와 플라이쉬만(J. L. Bybee and S. Fleischman, eds.,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1995])은 ‘동작 주적(agent-oriented)’ 서법(윤리적 서법 포함)과 ‘인식적(epistemic)’ 서법으로 두 가지 의미론적 형태를 구분하고, 정과 팀버레이크(S. Chung and A. Timberlake, “Tense, Aspect, and Mood”, 202-258)는 세 가지 형태 곧 ‘인식적(epistemic)’ ‘인식론적(epistemological)’ 그리고 ‘의무적(deontic)’ 서법으로 나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인식론적’ 서법은 ‘인식적’ 서법 안에 흡수 될 수 있을 것이다.

17) 따라서 인식적 서법은 넓게 정의하면, 진술에 관한 “화자의 이해나 인식의 상태”를 나타낸다. Palmer, *Mood and Modality*, 51.

있을 것이다/ 영희는 아마도 다섯 시에 집에 있을 것이다.”라는 진술문에서, 화자는 그 진술문이 참이라는 확신 또는 가능성을 표현한다. 서법의 또 다른 유형인, 의무적 서법은 진술에서 말해진 것의 실현과 관계 있다. 이 서법은 진술과 관련하여 능력이나 의무 같은 ‘동작 주(agent)’의 여러 조건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영희는 이 돌을 들 수 있다/ 영희는 이 돌을 들어야 한다.”라는 진술문에서, ‘들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와 같은 어구는 동작 주의 능력이나 의무를 표현한다. 이 서법은 의지나 의도와 함께 허락(예, “영희는 오늘 집에 있어도 된다.”)도 포함한다.¹⁸⁾

서법을 논의하는 데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몇 가지 용어 곧 ‘사건(event),’ ‘근원(source),’ 그리고 ‘참여자(participant)’를 정의해보자.¹⁹⁾ (1) 사건은 진술에서 서술된 것을 가리키고, 한 사건은 사실적이거나 비사실적 또는 부과되었거나 바랐던 것일 수 있다. 주절에서 묘사된 사건은 보통 제1사건, 종속절에서 묘사된 사건은 제2사건으로 불린다.²⁰⁾ (2) 근원은 사건에 사실적이거나 비사실적(인식적 서법의 경우), 또는 부과되었거나 바랐던 것(의무적 서법의 경우)의 성격을 부여하는 요소이다. 제1사건에서 근원은 보통 화자이다. 제2사건에서 근원은 주절의 주어로서 예를 들어, 의도나 의무 등을 나타내는 동사의 주어이다.²¹⁾ (3) 참여자는 사건의 현실성이나 비현실성에 책임을 지는 요소이다. 제1사건에서 참여자는 주어이다. 제2사건에서 참여자는 보통 주절의 간접목적어이면서 종속절의 주어나 동작 주이다.²²⁾

2. 서법과 미완료

성서 아람어 본문에서 미완료 동사로 표현된 다양한 서법을 볼 수 있다. 서법의 커다란 두 유형인 인식적 서법과 의무적 서법으로 나누고 다시 각각의 소유형 안에서 이들을 살펴보겠다.

18) 요약하자면 인식적 서법은 사건의 현실성을 평가하는 반면에, 의무적 서법은 현실성을 부과하는 것을 표현한다.

19) 정-팁베레이크는 사건, 근원, 그리고 ‘대상(target)’으로 나눈다. Chung and Timberlake, “Tense, Aspect, and Mood”, 241-242. 기안토는 이들 세 요소 가운데 ‘대상’ 대신 ‘참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A. Gianto, “Mood and Modality in Classical Hebrew”, 186-187.

20) 예, “영희는 오늘 그 책이 배달되기를 원한다.”라는 진술문에서 ‘영희는 원하다’는 제1사건, ‘그 책이 오늘 배달되다’는 제2사건이다.

21) 위 각주의 예문에서 근원은 ‘원하다’의 주어인 영희이다.

22) 예, “영희는 철수에게 그 책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진술문에서 참여자는 주절의 간접목적어이면서 종속절의 주어/동작 주인 철수이다.

2.1. 인식적(Epistemic) 서법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인식적 서법은 다시 ‘선언’, ‘단정’, ‘추측’, 그리고 ‘의심’ 서법으로 나눌 수 있다.²³⁾

2.1.1. 선언 서법(declarative)

선언 서법에서 근원은 그 사건이 확실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니엘 4:22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결정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된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왕의 꿈을 풀어나간다.

왕이시여, 해석은 이렇습니다 …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의 결정입니다(21 절). 당신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비인칭 용법의 능동 복수 분사)²⁴⁾ 당신의 거처는 들짐승들과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מִיָּדְיָ מִיְּמִינֵי מִיָּדְיָ). 소처럼 당신을 풀로 먹여 살리고(מִיָּדְיָ מִיְּמִינֵי מִיָּדְיָ; 비인칭 용법의 3인칭 능동 복수 미완료), 당신은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

이 구절에서 진술된 내용이 참이라는 것은 화자가 그 결정이 운명이라거나 ‘거룩한 감시자’의 결정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의하는 데에서 확실성을 얻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장엄한 형식으로 선포된다.

선언 서법은 진술 자체의 진리치보다는 그 진술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다. 이와 같은 서법적 미완료를 다니엘 5:7에서도 볼 수 있다. 여러 종류의 현자들이 벽에 쓰여 있는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 소환되었다. 벨사살 왕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부와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 나에게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보여 주는 사람은 누구나 자주색 옷을 입을 것이고(מִיָּדְיָ), 그의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을 것이며, 그는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מִיָּדְיָ).

이 미완료 동사의 사용으로, 화자인 왕의 굳은 의지가 잘 표현되고 있다. 왕은 ‘나는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라고 명할 것이며, 그를 나

23) 서법의 소유형들에 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정·팀버레이크는 인식적 서법을 다시 크게 ‘필요’와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Chung and Timberlake, “Tense, Aspect, and Mood”, 242.

24) 성서 아람어의 비인칭 주어 용법에 관해서는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60, no. 181을 보라.

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여기에 또 다른 비슷한 경우를 들어보자. 다니엘 2:5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현자들의 요구에 위협적으로 응대하며 자신의 의지를 선언한다.

… 나한테서 이 말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 사지가 찢겨 나갈 것이며(תִּתְעַבְדוּן),²⁶⁾ 너희 짐들은 폐허에 자리할 것이다(יִתְשַׁמְדוּן).²⁷⁾

진술문이 참이라는 것은 또한 경험이나 전통적인 지혜에 기초하여 확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예는 다니엘 6:27-28에 나오는 왕의 고백에서 볼 수 있다. 다니엘이 사자 우리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것을 보고 나서,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명을 내린다.

…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לֹא תִמָּחַד אֱלֹהֵי),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어진다. …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화자인 다리우스 왕은,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경험)에 기초하여 다니엘을 구해내신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선언 서법에서 진술은 자명하며 객관적인 것으로 소개되어, 아래 단정 서법에서와 같이 강조의 필요가 없다.

2.1.2. 단정 서법(assertive)

선언 서법이 경험과 인식에서 나온 것인 반면에, 단정 서법은 말해진 것이 참이라는 믿음이나 확신에 보다 의존한다. 이렇게 화자의 주관적인 믿음이나 확신은 단정 서법에 강조의 의미를 불어넣는다.²⁸⁾ 다니엘 4:8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자.

25) 발트케-오코너는 미래 시간에서 전접어 활용(미완료)은 “사건을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상황의 논리적 결과로써 소개한다”고 말한다. Waltke and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511, no. 31.6.2. 위의 경우에서 ‘표현된 상황’은 “나에게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보여 주는 사람은 누구냐”이다.

26) 직역: ‘너희는 사지가 될 것이다(תִּתְעַבְדוּן תִּהְיוּן)’.’

27) ‘확고(אָמֵן)’라는 말에 주목하라. 이 말은 ‘판결, 결정’을 뜻하는 페르시아 차용어으로써, 진술문의 강한 의지를 묘사해준다.

28) 선언 서법은 ‘객관적’ 인식 서법이고 단정 서법은 ‘주관적’ 인식 서법이다.

그 나무는 크고 강해져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며(ܣܘܦܢܐ) 땅 끝 어디에서나 보였다.

여기에서 화자가 처음 ‘그 나무가 크고 강해졌다(ܘܫܘܦܢܐ ܘܚܘܒܐ)’는 ‘사실’을 보고 할 때는 완료형을 사용하였으나, 그 사실의 ‘결과’인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미완료 동사로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화자가 그 나무가 크고 강하니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4:19에서는 같은 동사(ܣܘܦܢܐ)의 완료 형태가 사실(‘그 위대함은 하늘까지 닿았다’)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4:8에서 사용된 미완료는 과거의 특정한 동작을 생생하게 가시화하고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²⁹⁾

이와 같은 미완료 서법은 다니엘 4:31에서도 볼 수 있다.

나 느부갓네살은 날들의 끝에, 눈을 하늘로 들자 내 정신이 나에게 돌아왔다(ܘܫܘܦܢܐ).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축복하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께 찬미와 영광을 드렸다 …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오만을 반성하고 이성을 되찾아 가장 높으신 분을 찬미한다. 여기에서 왕은 자신이 하늘로 눈을 ‘들자’(완료) 자기의 정신이 ‘돌아왔다’(미완료)고 믿는다. 그가 이성을 ‘되찾게 된 것’은 그가 ‘하늘을 바라 본 것’의 논리적인 결과로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을 강조한다.³⁰⁾

다니엘 4:16에서도 미완료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사건의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설명하기에 앞서 꿈의 내용이 그에게 미친 영향이 묘사된다.

29) 위의 예문에서, 미완료는 그 사건(‘나무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다’)이 일어났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다른 사실들에서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용은 이 미완료가 주도적인 동작에 종속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데, 완료로 표현된 주 동작들의 단순한 발전이라는 것이다. “사실(‘크고 강해지다’)의 선언 뒤에, 글쓴이는 세부적인 묘사(8하반-9절)로 들어간다.” Joüon, “Cinq imparfaits remarquables dans l'araméen de Daniel”, *Bib* 22(1941), 21-24.

30) 로켈탈은 이 미완료가 앞의 행위(‘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 보다’)와 동시에 일어난 동작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50. 『공동개정』은 “나 느부갓네살은 기한이 차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다가 제 정신이 들어 …”로 옮겼다. 그러나 주용은 이 미완료는 ‘내가 눈을 들었다’라는 완료와 관련하여 ‘되돌아오다’는 동작의 종속을 표현한다고 지적한다. 곧 왕이 하늘로 눈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정신이 되돌아온 것이라고 하며, 여기에 사용된 미완료는 완료보다 더욱 생생한 표현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 Joüon, “Cinq imparfaits”, 22. 『표준』은 “…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로 번역한다.

그러자 다니엘은 잠시 당황하였다. 그의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 틀림없다(מַלְאָכָאֵי מִיִּנְיָאֵי מִיִּנְיָאֵי מִיִּנְיָאֵי). 미완료 + 인칭 대명 접미).

여기에서 서술자는 다니엘이 당황한 것은 그의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전하는 다니엘 6:19-25에서도 같은 용법이 발견된다. 이 이야기는 다리우스 왕의 관점에서 전개 되는데, 잠 못 이루던 왕은(19절)

새벽 동틀 무렵에 일어났음에 틀림없다(מִיִּנְיָאֵי). 그리고는 서둘러 사자 굴로 갔다(20절).

19절은 ‘왕은 밤에 먹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았다. 잠이 그에게서 달아났다’고 전하며 다니엘에 대한 왕의 걱정을 묘사한다. 따라서 사자 굴로 가기(לָיַס ‘갔다’) 위해 왕은 ‘틀림없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것(미완료)’이라고 서술자는 확신한다. 여기에서 미완료는 완료보다 표현을 강조하며 생동감을 부여한다.³¹⁾

2.1.3. 추측 서법(assumptive)

이 서법은 선언 서법의 반대이다. 추측 서법의 기본 개념은 근원이 진술의 진위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다. 다음 예들을 보자.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단 4:24).

그러므로 왕이시여 ... 정의로 당신의 죄를 끊어버리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당신의 불의를 버리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평안이 오랫동안 있을 것입니다(סְרִיִּיִּיִּי).

다니엘은 왕에게 의로운 일을 하라고 권고하고, 그렇게 한다면 왕의 평안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진술은 단정적이지 않은데, 여기에서 가능성을 표현하는 לְיִסְרָאֵל(‘아마도’)과 함께 미완료는 진술의 진위에 대한 화자의 숙고를 지시한다. 따라서 이는 추측의 서법이다.³²⁾

31) 그러나 드라이버는 이는 시작하는 사건을 소개하거나 지시하는 יָסַר(아람어에서는 לְיִסְרָאֵל) 다음에 오는 일반적인 미완료 용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기 미완료는 다음에 오는 완료(לָיַס) 동사와 함께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미완료는 묘사하려고 하는 장면의 특징을 부각시키며 특별히 생동감을 부여한다.” S. R. Driver, *A Treatise on the Use of Tenses in Hebrew*, 3d ed. (Oxford: Clarendon, 1892), no. 32b.

32) 『표준』: “...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가톨릭 『성경』: “... 그리하시면 임금님의 번영이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동개정』: “... 그리하

아다사쓰다 왕이 내린 칙령(라 7:11-26)에서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명을 수행하라는 특별 허가가 떨어진다.

너와 너의 형제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כּוּבִי)이라면 무슨 일에든지 쓰고
 남은 은과 금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라. … (7:18)

여기에서 ‘좋아 보이다(כּוּבִי)’라는 말은 참여자인 에스라와 그의 형제들이 어떤 행위를 두고 숙고하는 것을 나타낸다.³³⁾

2.1.4. 의심 서법(dubitative)

의심 서법은 근원이 그 사건을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지시한다. 이는 종종 질문과 연결되고 단정적 서법과 반대이다. 다니엘 3:15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세 젊은이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하며 오만한 질문으로 말을 맺는다.

…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단 말이나(יִשְׁׁוּבְכֶם מִיָּדִי מִוִּלְיָא
+인칭대명사 접미)?

이 미완료는 화자 곧 왕 자신이 언급한 행동(‘구해내다’)의 현실성에 의심을 품고 있음을 지시한다. 따라서 이 수사학적 질문은 ‘너희를 구해 낼 수 있는 신은 없다’라는 부정의 확인과 같다.

아다사쓰다 왕이 르훔과 심새에게 답을 보내는 장면(라 4:22)에서 의심 서법의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다.

너희는 유념하여 이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라. 왜 손실이 커져(אֲנִי מִלְּמָה
왕에게 피해가 가도록 해야 하느냐?

이 진술은 ‘손실이 커져 왕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⁴⁾

면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실 것입니다.”

33) 칠십인역은 이를 접속법으로 옮겼다. εἶ τι ἐπὶ σε καὶ τοὺς ἀδελφούς σου ἀγαθυνθή. 『표준』: “...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가톨릭 『성경』: “... 좋게 여기는 대로 써라.”

34) 접속법으로 옮긴 칠십인역을 보라. … μήποτε πληθυνθή ἀφανισμός. 드라이버는 “의문문에서 מִלְּמָה לְמַדָּע אֵיךְ אַיִךְ 다음에, 완료 대신에 보다 정중하고 간청이나 청원의 음조에 더욱 적합한 미완료가 선호된다.”고 말한다. Driver, *A Treatise on the Use of Tenses*, no. 39.

위에서 살펴본 인식적 서법의 네 가지 유형은 모두 진술이 참일 필요(선언적, 단정적 서법의 경우)가 있거나 참일 가능성(추측과 의심의 서법 경우)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2.2. 의무적(Deontic) 서법

미완료로 표현된 의무적 서법의 여러 유형들은 모두 진술의 실현에 관한 근원의 태도를 지시한다. 의무 서법(obligative)에서 명령은 수신인이 진술에서 말해진 것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적 서법의 다른 소 유형들은 진술 내용의 실현 가능성의 여러 다른 정도를 표현한다.³⁵⁾

2.2.1. 의무 서법(obligative)

의무 서법에서 근원은 참여자가 무언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다니엘 3:1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상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3:4-6).

너희는 나팔 ... 등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으면 앞드려(וּפְתַחְוּ),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 놓은 금상에 절해야 한다(וְשָׁבַעְתֶּם)(3:5)

앞 3:4(‘... 너희는 명령을 받았다’)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여기 나오는 두 미완료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서법은 다니엘 5:15에도 나오는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자 현자와 주술사들이 내 앞에 불러 와서 이 글자를 읽어 주어야 했다(וְקָרְאתֶם) ...

여기에서 바빌론의 현자와 주술사들은 왕 앞에서 벽에 쓰인 글자를 읽어줄 것을 요구받는다.

에스라 6:8에서 다리우스 왕은 유다 원로들이 성전 짓는 일을 도우라며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 강 저쪽에서 거둔 세금인 국고금에서 그 비용이 온전히 그 사람들에게 게 주어져야 한다(וְנָתַתֶּם לָהֶם מִן הַכֶּסֶף הַזֶּה 미완료 + 분사) ...³⁶⁾

35) 필요와 가능성은 의무적 서법에도 영향을 준다. A. Gianto, “Mood and Modality in Classical Hebrew”, 190.

건축을 모두 중단하라는 잠정적인 명령을 포함한다(라 4:17-22).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중단하도록 명을 내려라. 그리고 나에게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성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שָׁמַרְתָּ אֵלַי)(4:21).

2.2.2. 허락 서법(permissive)

허락 서법에서 근원은 어떤 일이 참여자에게 허락되었음을 선언한다.

에스라기에 이러한 서법이 몇 차례 나온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특별 허락을 내린다(7:13).

… 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사제이든지 레위인이든지, 너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도 된다(יָבֹאוּ).

여기에서 근원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사건이, 참여자인 ‘그것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에게 허락된다고 말한다.³⁹⁾

7:25에서 에스라는 강 건너 지방(유프라테스 서부)에서 모세 율법을 집행할 관리들과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너 에스라는 네 손에 지니고 있는 너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관리들과 판사들을 임명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강 건너 지방 모든 사람들을 판결할 수 있다(יִשְׁפֹּטוּ מִיִּשְׂרָאֵל מִיָּדְךָ מִיָּדְךָ מִיָּדְךָ + 분사) …

‘강 건너 지방 사람들을 판결하는’ 사건이 에스라가 임명하는 관리들과 판사들(참여자)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2.2.3. 능력 서법(abilitative)

여기에서 근원은 사건이 어떤 참여자의 능력 범위 안에 있다고 선언한다. 다니엘 4:14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불가변성과 그분의 능력이 장엄한 형식으로 표현된다.

… 그리하여 모든 살아 있는 사람은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 세상을 지배할 힘을 갖고 계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실 수 있으며(יִתְּנֶנָּה מִיָּדְךָ + 인칭대명사 접미), 그 위에 가장 낮은 자를 세우실 수 있다(יִשְׁמְרֶנָּה)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39) 『표준』: “… 가도 좋다.” 가톨릭 『성경』: “… 가도 좋다.”

여기에서 근원인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감시자’는 ‘세상을 주고 가장 낮은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사건이 참여자인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 능력 서법은 병행 구절인 4:34(‘... 그분께서는 교만 속에 걷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시다’)에 나오는 이 서법을 지시하는 뜻을 지니는 단어(ܠܗܘܢ) ‘할 수 있다’에 의해 확인된다.

다니엘 2:25에서도 이러한 서법의 미완료료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자 아룩은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서 말하였다. ‘제가 유대 유배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ܘܦܝܢ).’

병행구절인 26-27절에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ܠܗܘܢ, ܦܗܘܠ)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예문의 미완료료를 능력의 서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⁴⁰⁾

이 서법의 또 다른 예 하나를 보자. 다니엘은 왕의 꿈을 풀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다(단 2:30).

제가 모든 살아 있는 것 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저에게 이 신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이 왕에게 알려지게 하고 당신이 당신의 마음의 생각을 아실 수 있게(ܘܦܝܢ)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꿈의 해석이 왕에게 알려지면, 그 결과로 왕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사건은 첫째 사건의 논리적 결과이다.⁴¹⁾

마지막으로,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고 다니엘에게 말하는 내용(단 6:17)에서도 능력 서법을 볼 수 있다.

... 네가 한결같이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실 수 있을 것이다 (ܘܦܝܢܗܘܢ: 미완료 + 인칭대명사 접미).

여기에서 화자인 왕은 참여자인 ‘다니엘의 하나님’의 능력 범위 안에 그 사건이 있다고 선언한다. 병행구절인 6:21 ‘다니엘,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 ... 너의 하

40)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능력의 의미로 이해하여 옮긴다. “... 임금님께 꿈의 뜻을 알려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41) 이 미완료는 첫째 미완료(‘그 해석이 알려져야 한다’)처럼 의무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문맥에서는 능력의 서법이 더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눔께서는 너를 사자 굴에서 구해내실 수 있었느냐(לְנִי)?’가 이 서법을 지지한다.⁴²⁾

부정어와 함께 능력을 부정하는 서법도 나타난다. 느부갓네살 왕이 현자들을 위협하며 대답하는 장면(단 2:5)을 보자.

나한테서 나오는 말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할 수 없다면(לֹא תִהְיוּ עֹשֵׂי) 부정어+ 미완료 + 인칭대명사 접미) …

다니엘 6:6에서는 다리우스 왕의 대신들이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의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찾아내기 전에는, 이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우리는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לֹא נִשְׁמָט מִיָּד).

이 능력의 의미는 병행구절인 6:5에 나오는 능력의 의미를 지닌 단어(לְנִי לֹא נִשְׁמָט) ‘그들은 찾아낼 수 없었다’에 의해 확인된다.

3. 서법과 다른 동사 형태

미완료 이외에 서법을 표현하는 동사 형태로는 명령법과 요구법, 그리고 완료가 있다. 명령법과 요구법은 보통 의무적 서법을 표현한다. 그러나 명령법과 요구법이 드물지만 통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⁴³⁾

42) 그러나 이 문장 자체로는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콜린스는 역사적 다리우스가 자기 신인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에게 높은 신심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다리우스는 자신이 자기 신에 의해 특별히 보호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의 하나님과 비슷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Collins, *Daniel* (Minneapolis: Hermeneia, 1993), 270. 아람어 본문에는 주어 ‘너의 하나님(יְהוָה אֱלֹהֶיךָ)’에 특별한 강조점이 주어진다. 이 말은 문장 시작에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고, 다시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וְהוּא)로 나온다. 이러한 강조점과 서법은 현대 프랑스어 성경 *La Bible en Français Courant*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Seul ton Dieu, que tu sers avec tant de persévérance, pourra te sauver.*” 위의 미완료를 능력의 서법 대신에 회구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곧 ‘그가 너를 구하시기를 빈다’이다. 이러한 해석은 15절에서 묘사된 왕의 선의(‘왕은 다니엘을 살려 내기로 결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를 강조하게 된다.

43) 예를 들어, 요구법이 일상적인 요구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거나 명령법이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히브리어 문법서들(Joüon,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311-312 no. 114, j, n-p; Waltke and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3.1. 서법과 명령법

3.1.1. 의무 서법

이 서법에서 근원은 참여자가 어떤 사건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의무 서법이 명령법에 의해 표현된 서법의 소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니엘 7:5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마리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에 의해 보고된다.

보라,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 일으켜져 있던 이것은 입 속 이빨 사이에 갈비 세 개를 물고 있었다. 그것에게 누군가 말했다. ‘일어나(ܐܘܪܝܢ) 많은 고기를 먹어라(ܐܘܟܠܘܢ).’

이 서법은 다니엘 2:6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자들은 왕이 꾸 꿈을 이야기 해주어야 그 뜻을 풀이할 수 있다고 말한다(4절). 그러자 왕은 자신이 꾸 꿈과 그 해석을 현자들 자신이 왕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면 … 그러니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여주어라(ܐܘܪܝܢܐܢܝܢ) 명령법 + 인칭대명사 접미).

여기에서 화자인 왕이 그 사건(‘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는 것’)을 참여자인 ‘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적 서법이다.

명령이 참여자에게 어떤 사건을 수행할 의무를 지우지만, 아래와 같이 명령법 형태가 의무 아닌 다른 서법을 표현할 수도 있다.

3.1.2. 희구 서법

명령법으로 표현된 희구 서법에서 화자는 참여자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란다. 다니엘 2:4에서 이러한 용례가 발견된다.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세. 당신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ܐܘܟܠܘܢ). 그러면 저희가 … .’

바빌론 점성가들은 그들의 군주인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왕 쪽에서의 행동 하나를 기대한다. 곧 ‘바라옵건대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이다.

570, no. 34.3d; 572, no. 34. 4c)은 이들 특수 용례를 소개한다.

이와 같은 예 하나가 다니엘 6:16에도 나온다. 다니엘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왕에게 몰려가 자신들의 바람을 고한다.

왕이시여, 왕이 세운 어떤 금령과 범령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אָסִיחַ).⁴⁴⁾

위에서 살펴본 경우들은 모두 의무적 서법에 속한다. 그러나 성서 아람어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명령이 인식적 서법을 표현할 수도 있다.⁴⁵⁾

3.2. 서법과 요구법⁴⁶⁾

요구법에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요구법으로 표현되는 의지에도 의지의 단계에 따라 몇 가지 서로 다른 뉘앙스가 있다.⁴⁷⁾

3.2.1. 의무 서법

근원이 참여자에게 어떤 사건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느부갓네살 왕의 환시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감시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단 4:11-13).

저 나무를 베어라(명령법) ... 짐승들을 그 밑에서 쫓아내어라(תָּרַח) ...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라(טַבַּחֲבַח) ...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바뀌게 하라(יִשְׁתַּחֲוֶה). 비인칭 3인칭 복수 요구법. 그리고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라(יִתְּנֶה).

44) 『공동개정』의 “...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는 의무의 뉘앙스를 전달한다.

45) 기안토는 이사야 54:14에서 명령법에 의한 단정 서법의 예를 들고 있다. ‘네가 정의로 세워져, 억압에서 떨어질 것이다(יִפְּלוּ מֵעָלֶיךָ).’ Gianto, “Mood and Modality in Classical Hebrew”, 192.

46) 성서 아람어에서 미완료와 요구법 형태가 항상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동사 어근에서 이 둘 사이에 형태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요구법은 일부 동사에서 3인칭 남성 복수에서 마지막 -ן을 생략한 형태와 약동사에서만 나타난다.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48 no. 108. 따라서 ‘요구법 형태(jussive form)’와 ‘요구법 의미(jussive sense)’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요구법 의미’에 주목한다.

47) Waltke and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565, no. 34.1c. “의지의 형태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의지가 발휘되는 강도는 여러 요소들에 종속되는데, 청자에 대한 화자의 사회적 위치, 담화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동사의 의미가 이들 요소에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의지의 정확한 뉘앙스는 명령, 충고, 허락에서 요청, 소원 등에까지 이를 수 있다.” 드라이버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요구법은 상황이나 화자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농담이 다른 요구의 의미를 가정한 다.” Driver, *A Treatise on the Use of Tenses*, no. 50.

위의 본문에서 명령형 다음에 나오는 일련의 미완료(요구법)는 단순히 그 사건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⁸⁾ 다른 예 하나를 에스라 6:12에서 보자.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린다. ‘틀림없이 시행되도록 하라(יִתְעַבֵּד)’

여기에서 상급자인 다리우스 왕의 뜻은 하급자에게 요구법으로써 표현되었는데, 왕의 뜻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명령이다.

이 서법의 부정은 다니엘 4:16에서 볼 수 있다. 왕은 관대함과 정중함을 갖추고 다니엘을 안심시키며, 그에게 놀라지 말라고 당부한다.

… 벨사살, 그 꿈과 해석이 너를 놀라게 하지 말라(אַל-יִבְהַלְתֵּךְ) 부정어 + 요구법 + 인칭대명사 접미)⁴⁹⁾ …

3.2.2. 회구 서법

여기에서 화자는 참여자 쪽에 어떤 사건의 성취를 바란다. 다니엘 6:26에서 왕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남은 뒤 조서를 내린다.

그 때에 다리우스 왕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민족, 그리고 언어 들(을 사용하는 종족)에게 글을 내렸다. ‘너희의 평화가 창대하기를 바란다 (יִשְׁפָּר).’

왕의 축복이 요구법의 형태를 취했는데, 이는 ‘나는 너희에게 풍성한 평화가 있기를 기원한다’를 뜻한다.

다른 예 하나는 다니엘 2:20에서 볼 수 있다. 다니엘에게 신비가 드러난 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미한다.

지혜와 힘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분의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복 받으소서(יְהוָה מְבָרָךְ) 요구법 + 분사)⁵⁰⁾

48) 발트케-오코너는 이를 ‘신적 요구법(divine jussive)’이라 부른다. Waltke and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565, no. 34.3. 『표준』은 화자가 선언한 내용을 명령으로 이해하여, 아람어 본문(4:11)의 אֲנִי וְיְהוָה를 “이렇게 명령하였다.”로 옮겼다.

49) 부정명령으로 옮긴 테오도시온 역을 보라. τό ἐνύπνιον καὶ ἡ σύγκρισις μὴ κατασπευσάτω σε.

50) 테오도시온 역시 이를 회구의 의미로 이해한다. εἶη τὸ ὄνομα τοῦ θεοῦ εὐλογημένον …

3.2.3. 간청 서법

간청 서법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무엇인가를 할 것을 간청한다. 다니엘 4:24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권하는데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그러니 왕이시여, 부디 저의 조언이 당신을 기쁘게 하길 바랍니다(רַב־שָׂמֵחַ).

화자인 다니엘이 청자인 왕에게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청한다. 위와 같은 서법이 다니엘 5:12에도 나온다.

… 이제 다니엘이 불러오게 하십시오(רַב־תִּקְרָא). 그러면 그가 그 해석을 보여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의 어머니로 보이는 왕후는 다니엘을 불러 벽에 쓰여 있는 글자를 풀어보게 하라고 왕에게 청한다.

에스라 4:15에서 강 건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조들이 기록한 책에서 찾아보도록 하십시오(רַב־בְּחַן).

그들은 왕에게 왕의 선조들이 기록한 책에서 예루살렘 성이 반역하고 나라에 손해를 끼쳤다는 기록을 찾아보라고 청한다.

이러한 간청의 서법이 부정어와 함께 사용된 경우를 보자.

근심하고 있는 왕에게 왕후가 다가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단 5:10)

‘왕이시여 …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놀라게 하지 마시고(אַל-יִבְּלֶהְךָ), 당신의 얼굴색이 변하지 않게 하십시오(אַל-יִשְׁתַּנֶּה).’⁵¹⁾

3.2.4. 허락 서법

이 서법에서는 어떤 사건이 참여자에게 허락된다. 에스라 6:7을 보자.

유다 총독과 유다 원로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그대로 두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라(וַיִּבְנוּ).

51) 테오시온은 이를 부정명령으로 읽는다. μὴ παραστέψωσάν σε … καὶ ἡ μορφή σου μὴ ἀλλοιούσθω

화자인 다리우스 왕은 고레스 왕의 문헌을 살펴본 다음, 유다 총독과 원로들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한다.

3.2.5. 선언 서법

요구법은 인식 서법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근원은 사건이 확실한 것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에스라 6:12에서 왕은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게 하신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느님의 집을 파괴하려고 손을 내미는 어떤 왕이나 민족이든지 멸하실 것이다 (נִמְחָדִים).

화자인 다리우스 왕은 그 사건이 확실하다고 선언한다. 곧 ‘하느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3.3. 서법과 완료

인식 서법은 완료 동사와도 함께 나타난다. 일부 완료의 특별 용법 곧 ‘서간체 완료’, ‘예언자적 완료’, 그리고 ‘확신의 완료’는 추측, 단정, 그리고 선언 서법의 예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실제 시간은 미래임에도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으로 소개된다.⁵²⁾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왕궁을 거닐며 과도한 자만에 빠져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칭송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 하나가 내려와 비극의 시간을 선언한다(단 4:28).

… 느부갓네살 왕, 왕국이 너에게서 떠났다(נִמְחָדִים)고 너에게 말해졌다.

화자인 하늘의 소리는 왕국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떠나는 사건을 확실한 것

52) 기안토는 이렇게 완료의 특별 용법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을 서법과 관련하여 재정의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Gianto, “Mood and Modality in Classical Hebrew”, 194.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미 일어난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주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완료는 미래, 근접 미래에 속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되는데, 이는 진술 순간에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개된다.” Joüon,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298g. 완료와 미완료 둘 다 미래 시간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발트케-오코너는 “완료는 그 상황이 완결되었음을 표시하지만, 미완료는 상황이 완결되었음을 말하기 보다는 종속되어 있음을 표시한다”고 그 차이점을 설명한다. Waltke and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486, no. 30.4d. 완료는 미래의 동작을 완결되고 독립적인 것으로 소개하며 일종의 극적인 성격으로 이끈다.

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완료는 ‘선언’ 서법을 표현한다.⁵³⁾

이와 같은 선언 서법은 다니엘 7:27에서도 나타난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왕국의 위대함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יהיב). …

화자인 천사는 ‘왕국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질(문자적으로는 ‘주어졌다’) 사건이 확실하다고 선언한다. 이 서법으로 화자는 미래의 상황이 완결되고 독립적인 것임을 극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병행구절인 7:18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이들이 왕국을 받을 것이다’ יהיב)에서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거룩한 이들이 왕국을 받는 사건은 이미 주어진 완결된 상황(‘주어졌다’)에 종속된다.⁵⁴⁾

서간체 완료 곧 ‘추측’ 서법은 에스라 4:14에서 볼 수 있다. 서간체 완료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의 편에서 과거 상황을 추정하는 것이다.⁵⁵⁾

그러므로 저희가 보내어(שלח) 왕께서 아시도록 합니다(אשרת).

완료는 또 의무적 서법을 표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의무’ 서법의 예 하나를 보자. 다니엘 7:28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다.

… 나 다니엘은 나의 생각들이 나를 놀라게 해 얼굴색이 변했으나,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여야 했다(התבונן).

여기에서 화자인 다니엘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자기가 본 환시의 묘사를 끝맺는다.⁵⁶⁾

53) 드라이버는 성취가 미래에 놓여있는 행위를 지시하는 데에 완료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말해질 수 있는, 바뀔 수 없는 결정적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결심, 약속, 규정, 특히 신의 판결 같은 것이 흔히 완료 시제로 선언된다.” Driver, *A Treatise on the Use of Tenses*, no. 13.

54) 로켈탈은 아마도 이 완료는 프알 완료 수동형(יהיב)과 수동 분사(יהיב) 형태가 유사한 데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60. 그러나 이 동사 형태는 여기에서 분사가 아니라 완료로 이해되어 왔다.

55) Waltke and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489, no. 30.5.1e.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서간체 부정과거 용법에서 볼 때, 글쓴이는 완료형을 사용하여 섬세한 예의를 표현한다. 곧 그는 수신인의 상황을 가정하고 서신이 과거에 발송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4. 종합적 고찰

지금까지의 연구 조사에서 성서 아람어의 한정 동사가 서법적 의미를 수반할 수 있음을 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성서 아람어 동사 미완료와 그 밖의 다른 동사 형태가 표현한 서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미완료의 사용: (1) 선언 서법은 진술된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 진술 내용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지만, 그 시작이 문맥에 따라 가깝거나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간주한다. (2) 단정 서법은 과거의 사건 묘사에서 그 사건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실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암시된다. 또는 근원이 그 사건이 참이라고 생각하거나 믿는다. 이러한 서법은 묘사하는 장면에서 생동감을 부여한다. (3) 추측 서법은 근원이 진술이 참인지를 숙고한다. (4) 의심 서법은 근원이 사건을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한다. 종종 ܢܗܝܢ ܢܗܝܢ 라는 의문사와 함께 사용되어 미완료는 간청이나 청원에 보다 정중하며 적합한 음조를 부여한다. (5) 의무 서법은 근원이 참여자가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6) 허락 서법은 근원이 참여자에게 어떤 일이 허락된다고 표명한다. (7) 능력 서법에서 근원은 사건이 참여자의 능력 범위 안에 있다고 선언한다.

2. 명령법의 사용: (1) 의무 서법은 근원이 참여자에게 사건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명령법의 가장 광범위한 사용은 직접 명령이다. (2) 명령법으로 소망이나 청원을 표현(희구 서법)한다.

3. 요구법의 사용: (1) 의무 서법은 요구법을 사용하여 명령의 의미를 표현한다. (2) 희구 서법은 참여자 쪽에 어떤 사건의 성취를 바란다. (3) 간청 서법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을 청한다. (4) 요구법은 상황에 따라 허락의 의미를 표현한다. (5) 요구법은 일부 상황에서 사건이 확실한 것으로 지시(선언 서법)한다.

4. 완료의 사용: (1) 선언 서법은 근원이 성취가 확실한 것으로 규정한다. 결심이나 규정, 신의 심판 같이 그 성취가 미래에 놓여 있는 사건을 완료를 사용하여 변하지 않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다. 전통적으로 ‘확신의 완료’라 불린다. (2) 추측 서법은 메시지의 수신자 편에서 과거 시간의 상황을 묘사한다. 전통적으로 ‘서간체 완료’라 불린다. (3) 완료가 때로는 요구를 강조(의무 서법)하기 위해 사용된다.

성서 아람어에서 동사는 작은 변화만으로 묘사하는 장면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흥미로운 도구이다. 따라서 주어진 동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정

56) 다니엘 8:26과 12:4를 참조하라. 이 두 구절에서 다니엘은 환시와 그 말씀을 비밀에 붙이려는 말을 듣는다.

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아람어 동사가 묘사하는 미묘한 뉘앙스를 감지하기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사 활용에 흔히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저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 조사에서 보았듯이 아람어 한정동사 형태가 서법적 의미를 수반할 수 있다.

성서 아람어에서 서법은 아람어 동사의 특성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요소이다. 서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성서 본문을 읽을 때 본문 안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Keywords)

성서 아람어, 한정동사, 법, 서법, 서법적 의미.

Biblical Aramaic, finite verbs, mood, modality, modal nuance.

<참고문헌>

- Bybee, J. L. and Fleischmann, S., eds.,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1995.
- Bybee, J. L., Perkins, R. D., and Pagliuca, W.,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4.
- Chafe, W. L. and Nichols, J. eds., *Evidentiality: the Coding of Epistemology in Language*, Norwood: Ablex, 1986.
- Chung, S. and Timberlake, A., “Tense, Aspect, and Mood”, Shopen, T.,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Vol.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202-258.
- Collins, J. J., *Daniel*, Minneapolis: Hermeneia, 1993.
- Coxon, P. W., “The Syntax of the Aramaic of Daniel: A Dialectal Study”, *Hebrew Union College Annual* 48 (1977), 107-122.
- Driver, S. R., *A Treatise on the Use of Tenses in Hebrew*, 3rd. Ed., Oxford: Clarendon, 1892.
- Eliton, I., “Some Philological Observations in Daniel”, *Hebrew Union College Annual* 14 (1939), 13-22.
- Fensham, F. C., *The Book of Ezra and Nehemiah*, Michiga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1892.
- Gesenius, W. and Kautzsch, E., *Gesenius' Hebrew Grammar*, Cowley, A. E., trans., Oxford: Clarendon, 1910.
- Gianto, A., “Mood and Modality in Classical Hebrew”, *Israel Oriental Studies* 18 (1998), 183-198.
- Goldingay, J. E., *Daniel*, Dallas: Word Biblical Commentary, 1989.
- Gropp, D. M., “The Function of the Finite Verb in Classical Biblical Hebrew”, *Hebrew Annual Review* 13 (1991), 45-62.
- Joüon, P., “Cinq Imparfais dans l'Araméen de Daniel”, *Biblica* 22 (1941), 21-24.
- Joüon, P., “Notes sur Quelques Versets Araméens de Daniel et d'Esdras”, *Biblica* 8 (1927), 182-187.
- Joüon, P.,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6.

- Longacre, R. E. and Hwang, S. J. J., “A Textlinguistic Approach to the Biblical Hebrew”, Bergen, R. D., ed., *Biblical Hebrew and Discourse Linguistics*, Dallas: Summer Institute, 1994, 336-358.
- Longacre, R. E., “Discourse Perspective on the Hebrew Verb: Affirmation and Restatement”, W. Bodine, ed., *Linguistics and Biblical Hebrew*,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177-189.
- Longacre, R. E., *Joseph, a Story of Divine Providence: A Text-theoretical and Textlinguistic Analysis of Genesis 37 and 39-48*, Winona Lake: Eisenbrauns, 1989.
- Lyons, J., *Linguistic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McFall, L.,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olutions from Ewald to the Present Day*, Sheffield: Almond Press, 1982.
- Montgomery, J.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Edinburgh: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1927.
- Muraoka, T., “Notes on the Syntax of Biblical Aramaic”, *Journal of Semitic Studies* 11 (1966), 151-167.
- Myers, J. M., *The Book of Ezra and Nehemiah*, New York: The Anchor Bible, 1965.
- Niccacci, A., “An Outline of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in Prose”, *Liber Annus* 39 (1989), 7-26.
- Palmer, F. R.,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London: Longman, 1979.
-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Revell, E. J., “The System of the Verb Standard Biblical Pros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60 (1989), 1-37.
- Rosenthal, F.,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6th, ed.,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95.
- Torrey, C. C., “The Aramaic Portion of Ezra”,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 and Literature* 24 (1908), 209-281.
- Waltke, B.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Abstract>

Modality in Biblical Aramaic

Ms. Sun-Nam Kang

(Graduate School of Theology of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offers a few short studies on various modal points in Biblical Aramaic texts. The purpose is to shed light on the various modal forms of the verb in Biblical Aramaic by placing each form within in the context of various types of modality. As presented in Classical Hebrew grammars, so too Biblical Aramaic generally presents such nuances and the jumble together rather distinct uses of a given verb form in different modal types. The modal nuances, which are discussed here, are connected with the finite verbal forms, namely, imperfect, imperative, jussive, and perfect.

Biblical Aramaic verb has two moods, an imperative and a jussive, which express modal nuances. In addition to imperative and jussive, imperfect and perfect forms can carry such nuances. Mood is a category of verbal form whereas, modality is a category of meaning. According to the general linguistic definition, modality is the linguistic domain that covers the speaker's attitudes and opinions about a proposition. Two basic categories of modality have been distinguished: 'epistemic', and 'deontic'. Epistemic modality is used to indicate the possibility or necessity of the truth of the proposition. Deontic modality is concerned with the realization of the proposition.

The list of the categories for the modal uses of the imperfect and the other verb forms in Biblical Aramaic is as follows: (1) The uses of imperfect: Declarative modality; Assertive modality; Assumptive modality; Dubitative modality; Obligative modality; Permissive modality; and Abilitative modality. (2) The uses of imperative: Obligative modality; and Optative modality. (3) The uses of jussive: Obligative modality; Precative and optative modality; Permissive modality; and Declarative modality. (4) The uses of perfect: Declarative modality; Assumptive modality; and Obligative modality.

The modal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Biblical Aramaic because it helps one to catch the true and profound meaning of the Biblical texts.